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 호바트한인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오늘 예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온 세대 통합예배'로 드려집니다.
- 예배 후에 간단한 다과와 친교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따뜻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게 하옵소서.
- 서로를 귀히 여기며 겸손과 사랑으로 섬겨,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 다음 세대를 언약의 자녀로 신실하게 양육하고, 호바트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호바트한인교회

HOBART KOREAN CHURCH

주일 예배 순서

2026.10.4.

예배안내

주 일

오후 1시00분

새벽예배

오전 7시 (토요일)

주일학교 예배안내

주 일

오후 2시30분

이번주(4일) 예배위원

기도 인도

김윤호 목사

예배 안내

정경남 권사

헌금 위원

염순자 권사

다음주(11일) 예배위원

기도 인도

박세복 장로

예배 안내

정경남 권사

헌금 위원

염순자 권사

* 표는 다같이 일어나서 인도: 김윤호 목사

* 예배로의부름 다같이

* 경배와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다같이
비 준비하시니

*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 성시 교독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다같이

* 십계명 출애굽기 20:2~11 다같이

* 회개기도 다같이

* 은혜의 선언 로마서 4:7-8 인도자

* 찬 송 8장 거룩 거룩 거룩 다같이

기도 인도 김윤호 목사

교회 소식 인도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29:45~46 다같이

설교 제목 깨끗하게 하신 진짜 이유 인도자

찬 송 420장 너 성결키 위해 다같이

합심 기도 다같이

봉 헌 다같이

* 파송의 노래 예수의 길 다같이

* 축 도 인도자

2

말씀 노트

오늘 말씀이 삶이 되도록

이번 주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기 위해 아래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 이번 주 말씀

하나님께서서는 _____ 분입니다.

(작성 가이드: 설교에서 만난 하나님의 성품을 적어 봅니다.)

🗣️ 함께 나누기

-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함께 살기 위해' 행하신 일 중 가장 마음에 와 닿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 예수님의 보혈로 성별된 제사장으로서, 이번 주에 나의 귀(생각), 손(일터와 행동), 발(삶의 자리) 중 가장 먼저 사랑으로 정돈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 구름 기둥의 특별한 기적만 바라보던 태도를 벗어나, 매일 우리 집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실천할 아침과 저녁의 상번제 기도는 무엇입니까?

🕯️ 이번 주 실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시기 위해,
_____ 하기.

(작성 가이드: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주에 실천할 행동을 적어 봅니다.)

🙏 함께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가족(성도)들과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눔을 위한 기도) 우리 텐트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일터와 발걸음을 보혈로 지켜 주셔서, 하나님을 모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매일의 일상을 거룩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답을 말하려 하기보다, 서로의 마음과 삶을 나누어 보세요”

3

지난 주 설교 요약

입히시려고 주신 옷 (출애굽기 28:1~43)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앞에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좋은 옷과 경력, 교회에서의 직분과 경건의 행위로 내 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나를 포장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옷으로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죄와 부끄러움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류의 조상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몸을 가렸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을 수밖에 없었듯이, 내가 스스로 엮어낸 초라한 의의 옷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이처럼 포장된 자아의 유사귀조차 가릴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친히 건네시는 은혜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예복'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은 자신의 취향이나 자격을 뽐내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입는 옷이었으며, 옷을 짓는 기술자들의 솜씨까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거룩한 섬김에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실력이나 능력을 의지하려다 지치는 오만을 내려놓고, 먼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을 홍옥수 보석 위에 새겨 두 어깨에 메고, 판결 가슴받이를 통해 자신의 심장 위에 품은 채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고 연약한 백성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나아가갈 때마다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죽음으로 직무를 마쳤으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심장에 품으시고 영원한 중보를 올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심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준 이웃의 이름까지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겉옷 자락에 달린 금방울 소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거룩한 순종의 소리였으며, 이마의 순금 패('주님께 거룩')는 백성의 불완전한 예물과 예배의 허물까지 대제사장이 대신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을 빼앗기시고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며 휘장을 찢어 주셨기에, 우리는 부족한 예배와 서툰 기도를 들고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갑니다.